

 <b>서울대학교</b> SEOUL NATIONAL UNIVERSITY	
 <b>보도자료</b>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 공동체
<b>보도 희망일</b>	<b>즉시/제한없음</b>
<b>배포일</b>	2021. 08. 12.(목)
<b>담당기관</b>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b>홍보담당</b>	문의
<b>기획처 홍보팀(880-9072, 5054)</b>	<b>기획팀 정미 (02-871-1621)</b>

## 두나무(주), 서울대학교에 200억 원 쾌척

- 송치형 의장, 김형년 부사장 창업자 모교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150억 원 기탁
-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에 50억 원 출자
- 세계수준의 연구자 지원 및 우수 인재와 스타트업 육성으로 상생 실천...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가 우수 인재 양성 및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위해 서울대학교에 200억 원을 쾌척한다. 이에 서울대학교와 두나무는 8월 11일(수) 서울대학교에서 오세정 총장, 이원우 기획부총장, 유흥림 사회과학대학장, 장판식 농업생명과학대학장과 두나무 송치형 의장, 김형년 부사장, 이석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협약식을 진행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 김형년 부사장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농경제사회학부의 발전기금으로 각각 100억원과 50억원을 기탁한다. 기금은 신임 교수 및 세계 수준의 교수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한국경제혁신센터 지원, 대학원생 및 학부생 장학금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 두나무는 발전기금 150억 원 외에도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의 ‘서울대 STH 핀테크 혁신 벤처투자조합’펀드와 ‘서울대 STH 창업초기 벤처투자조합’펀드에 50억 원을 출자,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 두나무 송치형 의장은 "2012년 두나무 창업 당시 사무 공간을 작게 지원받아 시작했고, 초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나중에 두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학교를 위해 반드시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해 왔다.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해외 유수의 교수진을 모시려고 해도, 자원 문제로 성사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 오늘의 기부가 세계 수준의 연구 환경 조성과 젊은 인재들의 성공 창업의 꿈을 실현하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두나무 김형년 부사장은 "졸업 당시, 졸업하고 정해진 길을 가는 걸 당연시하고 창업은 오히려 말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창업 당시 보내주셨던 교수님들과 선후배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회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젊은 인재들의 창업 활동의 열기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상생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오세정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기업의 성취를 넘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두나무(주)의 기부 실천은 모교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며 존중을 표했다. 이어 오세정 총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디지털 금융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운용 기업의 '두나무(주) 기금'이 서울대학교의 교육·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인재양성과 진리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데 소중한 사용될 것" 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사진설명: 두나무 김형년 부사장(좌측),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가운데), 두나무 송치형 의장(우측)이 지난 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발전기금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나무]

2012년 설립된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소셜 트레이딩 기반 주식 플랫폼 '증권플러스(구 카카오스탁)',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서비스 중이다.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증권, 자

산관리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혁신 서비스, 뛰어난 기술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3월에는 사내 블록체인 연구소 '람다(Lambda)256'이 독립 법인으로 분사를 단행, 세계 최초 컨소시엄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를 정식 런칭하며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앞장 서고 있다. 또한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1,000억 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